

합성원료 수입가격 “1월 강세” 예고

수입업협회, 관세 낮아져 EG 다량구매 조짐 ... P-X 중국수요도 증가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가격이 3개월째 상승하면서 수입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코이마 지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이 컸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수입업협회에 따르면, 2003년 12월 수입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코이마(KOIMA) 지수(1995년 12월=100)는 11월보다 3.39%p 올라 사상 최고치인 125.22를 기록했다.

12월 국제유가는 미국 북동부 한파로 난방유 가격이 상승했으며, 후세인 체포 이후 잠기 주춤했으나 지고적인 테러로 사우디 및 이라크의 정정불안이 겹쳐 석유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감을 부채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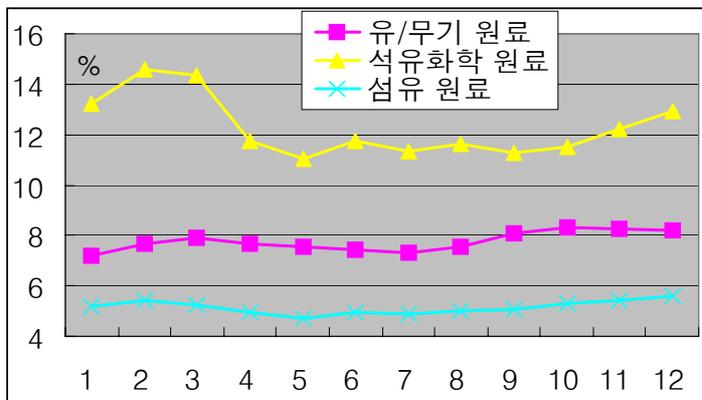
나프타 가격은 겨울철 성수기에 수급이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아시아 지역의 매수물량이 증가해 상승세를 시현했으며, 프로판 가격도 동절기로 인한 수요증가가 가격상승을 주도했다.

P-X(Para-Xylene) 역시 중국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나 메탄올은 보합세를 나타낸 가운데 동남아 수급불안과 중국의 수요증가로 2004년 1월에는 가격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합성섬유 원료인 EG(Ethylene Glycol)도 중국의 수입관세가 기존 7%에서 1월1일부터 5%로 낮아짐에 따라 12월 구입을 보류한 채 1월 초에 다량 구입이 예상돼 1월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카프로락탐은 플랜트 트러블과 원료인 벤젠, 암모니아 가격상승으로 강보합세를 시현했다.

원자재 가격 등락률(2003)



한편, 천연고무는 타이 및 말레이시아의 날씨 회복으로 원료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수요가 위축돼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또 대두는 운임료가 상승하고 광우병 파동으로 식물성 단백질인 대두박 사료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13>